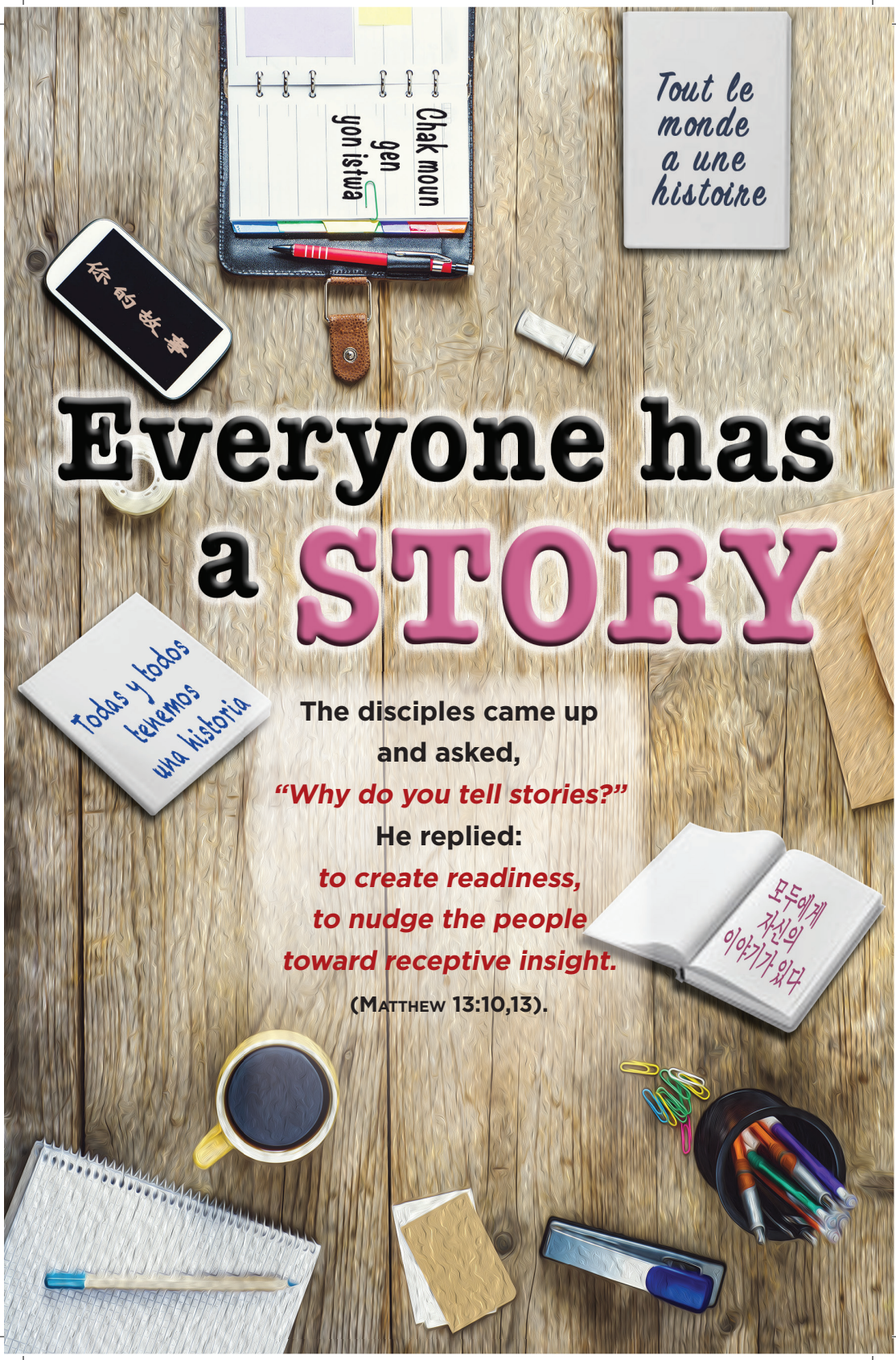

The disciples came up and asked,

"Why do you tell stories?"

He replied:

to create readiness, to nudge the people toward receptive insight.

(Matthew 13:10,13).

모든 사람에게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내가 자랄 때에는 나와 비슷하지 않거나 나처럼 기도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알지 못했습니다. 나는 텔레비전에서 들었던 "Bussing(백인·흑인 학생을 융합하기 위한 강제 버스 통학)"에 대한 모든 소동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아이들은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았을까? 사람들이 왜 그렇게 화가 났을까?"하고 나는 궁금했습니다.

과거를 되돌아 보면, 나는 인종이나 출신국, 종교적 다원주의에 대해 많이 생각하지 않고 자랐다는 것을 깨달게 됩니다. 우리 학교에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거의 없었으며, 학구 전체에 하나의 유대인 가족만이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가장 보편적인 사람이고, 내 이야기는 모두에게 동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독일 혈통을 가진 나의 할머니가 여름 동안 내내 피부가 너무 까맣게 타서, 그녀가 들어갈 수 없는 식당이 있다는 것을 나와 나누게 되었습니다. 나의 할머니는 주인이 자신을 흑인으로 여겼다고 나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30, 40, 50 대에, 펜실베니아 주 피츠버그 도시의 인종차별 구역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나의 할머니가 그 이야기를 나에게 말하기 전에, 자신이 보였던 모습 때문에, 차별을 경험한다는 것 조차 나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백인 전용" 레스토랑은 없지만, 서로 다른 얼굴과 신앙을 환영하지 않는 곳은 분명히 있습니다. 시카고로 이사 왔을 때, 워싱턴 DC 의 한 친구가 나를 방문한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시내 버스에 있는 동안, 이야기하고 웃고 떠드는 우리를 사람들은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시끄러웠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백인이었고 그녀는 갈색인 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기 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나는 피부색 때문에 차별받는 적이 결코 없었습니다. 이것은 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알고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종차별의 부작용을 보아 왔습니다. 이것은 내가 인간의 영혼을 약화시키도록 마음과 정신과 체계를 바꾸는 운동의 일부가 되도록 강요당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우리들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시간을 가질수록, 우리는 우리가 다르지 않고 더욱 더 비슷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제가 화해 사역 Reconciliation Ministry 의 일을 지원하는 이유입니다. 화해 사역에 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하는 인종차별적 관행을 종식시키기 위한 지식, 관계 및 도구를 공급하는 프로그램에 자금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화해하고, 각각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때,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이야기가 됩니다.

나는 당신이 화해 사역 Reconciliation Ministry 에 기부하고 당신의 이야기를 나누기를 기도드립니다.

Rev. Jennifer Kottler, M.Div. MSM